

# 진도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상 수상

### 문화전문인력 양성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지역민 문화가치 상승·일자리 창출 '기대'

진도군이 문화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제1회 한국문화가치대상'을 수상했다.  
진도군은 최근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 주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은 문화전문 인력과 조직 양성을 바탕으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진도문화예술제 △전남민속예술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국제·전국 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진흥 분야 공약사업 추진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7기 문화정책 분야 공약과 이행 실태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자체의 올바른 문화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시민단체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이번에 처음 제정·수여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대한

민국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인 보배섬 진도군에 걸맞게 문화예술진흥기금 50억원 조성 등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지역민들의 문화가치 상승과 일자리 창출로 희망찬 군민 반영하는 진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화예술진흥, 문화유산 전통문화, 관광진흥 등 16개 분야에서 18개 우수 지자체가 수상했다.  
/진도=한길준 기자 gihan@



완도군 ↔ 농어촌버스업체  
스 단일요금제(1,000원 버스) 시행

완도군과 완도교통, 고급여객, 신지여객 등 버스업체 대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 완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이달부터 일반 1천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교생 500원

완도군이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2017년 12월 장보고대교 개통과 함께 군청-약산 당목 구간에만 적용하던 단일요금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그동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던 지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교통 복지 증진과 운수 업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에 완도군과 완도교통, 고급여객, 신지여객 등 버스업체 대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버스업체의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행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 버스 업체는 운행 시간 준수에 승객에게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농어촌버스는 관내 전체 53개 노선에 28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인의 경우 1천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교생 500원이다.  
완도군은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버스 요금의 부담 감소로 완도군민과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률이 증가해 완도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도=유대성 기자 yds@

### 영암 '3·1운동 기념행사' 성료 학생·군민 등 1천여명 참여

## “강진군동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가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벚꽃의 향연

영암군은 지난 1일 영암공원과 영암읍 시가지에서 주유기관·사회단체장과 보존가족, 공무원, 학생, 군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자존과 국권회복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자 3·1운동 제100주년 기념식과 만세운동 등 다양한 재현행사를 가졌다.  
금년은 100주년을 맞아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로써 서화퍼포먼스 '대한독립만세'를 시작으로 1부 기념식을 영암공원 3·1운동 기념비에서 헌화 및 분향, 기미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3장과 3·1절 노래로 마무리 하고, 2부 361운동 재현행사는 '대형태극기 수제제작'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햇볕절화 및 전달식 그리고 시가행진과 3·1운동 인물 설명, 만세운동 탄압재현, 만세삼창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어져 일본의 탄압을 얼마나 심했는지 군민이 뼈저리게 느끼는 자리가 됐다.  
3부 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영암 5일시장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인물 조극한 독립운동가 설명, 일본군과 독립군의 대치 및 결투 장면 그리고 고문장면 등을 선보였고 독립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을 담은 한의 춤과 음악의 장을 펼치고, 참여자들에게 개양용 태극기를 기념품으로 나눠주고 참여자들과 중식을 같이 함으로써 군민들의 화합의 장이 됐다.  
전동평 군수는 "우리민족의 저력이자 우리 후손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야 할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삼천만 온 겨레정신의 표출이었던 3·1운동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자립과 자존의 정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지난 제1회 강진군동금곡사 벚꽃길나들이 축제 장면. /강진군 제공

강진군동 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추진위원회는 최근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축제 일정을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으로 확정했다.  
기상청에 보도에 따르면 벚꽃 개화시기가 예년보다 3일에서 4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4월 6일 마량물토수산시장 개장 예정에 따라 중복을 피하고 전국 벚꽃축제시기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과 31일로 확정했는데 이날이 군동 금곡사 벚꽃이 만개해 축제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충남 군동면장은 "이제 축제일정이 확정된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석 추진위원장은 "꽃을 주제로 한 축제는 날씨에 축제의 성패를 거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상청 보도와 타지역 축제 일정 등을 참고해 날씨를 확정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진군과 군동면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동금곡사 벚꽃축제는 올해 상설무대 설치와 기존 주택을 매수해 음식부스장 조성, 축제장 기반정비,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 등 축제준비에 한창이다.  
한편, 면민의날 행사는 11월 9일 행사를 개최했으나 금년부터는 2개의 행사를 함께 하기로 함에 따라 면민의날 행사는 오는 29일 제2국민체육관에서, 벚꽃나들이는 30일 부터 31일까지 금곡사 벚꽃축제장에서 열린다.  
/강진=전운재 기자 wjun@

##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출산준비교실 운영

오는 26일까지 임신부 대상 출산·육아 정보 제공

무안군은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기위해 오는 26일까지 남악건강생활 지원센터에서 주 2회 총 8회에 걸쳐 남악주민 중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해피마미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피마미 출산준비 교실'은 무안군 출산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남악지역의 지역특성을 반영해 운영되는 특화산업으로,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산후조리법, 신생아 케어, 행복한

육아 양육 등 출산을 앞둔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눈길을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산준비교실은 출산·육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임신부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면서 "앞으로도 임신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수형 기자 ksh@

기사제보 2580@jndomin.kr

사람이 우선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